

경제

‘희망근로의 힘’ 취업자수 깜짝 증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광주·전남 취업자 수가 늘었다. 하지만, 고용 시장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성급하다. 정부 주도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률 취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취업자수는 66만2천명으로, 전월보다 1만3천명(2.1%),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8천명(2.8%)이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분기에 대비해 ▲20~29세 6천명 ▲30~39세 2천명 ▲40~49세 4천명 ▲50~59세 6천명 ▲60세 이상 9천명씩 각각 증가해 고용률의 취업이 두드러졌다.

직업별로는 농업·어업수령종사자(5천명·57.0%)와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 종사자(2만3천명·11.1%)가 늘었다.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

6월중 광주 1만3천명 ↑

전남지역도 7천명 증가

청년 실업률 1.6%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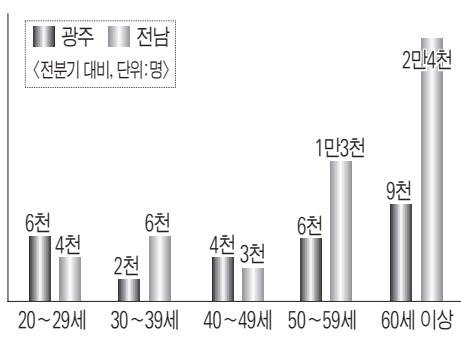
로자도 지난해보다 각각 6천명(4.1%), 8천명(17.3%)씩 증가했다.

실업자 수도 함께 증가했다. 6월 실업자 수는 3만3천명으로 전월보다 5천명(17.7%),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천명(19%)이 늘었다.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 부문 취업자 수가 증가한 한편 프로젝트에 신청한 사람들이 모두 구직자로 처리되면서 실업자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남의 경우 취업자 수가 94만1천명으로 전월보다 7천명(0.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9천명(3.2%)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29세 4천명 ▲30~39세 6천명 ▲40~49세 3천명 ▲50~59세 1만3천명 ▲60세 이상 2만4천명이 전분기보다 각각 늘었다.

■광주·전남 2분기 연령별 취업자 증가



실업률은 광주가 4.7%로 0.6%포인트 오른 반면 전남은 1.2%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실업률은(2분기) 광주가 7.8%, 전남이 4.9%로 전분기보다 각각 1.6%씩 떨어졌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영향도 있었지만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되면서 점차 고용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 같다”며 “하지만 구조적인 고용회복이 이루어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광주는 640개 사업장에 7천500명을, 전남은 1천316곳에 1만188명을 배치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기아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출시

기아자동차는 15일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를 출시했다. 친환경 하이브리드카로 기술력 가격 환산 39km/ℓ의 연비를 자랑한다. 가격은 2천54만원에서 2천335만원(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기준).

/연합뉴스

‘경기 바닥론’ 아직은 이르다

광주·전남경총, 95개 기업 경영자 전망 조사

광주·전남 기업 총수 상당수가 ‘경기 바닥론’에 대해 다소 성급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은 올해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이 -2%대 또는 그 이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광주·전남 경영자총합회는 15일 광주·전남 95개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2009년 하반기 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2%가 ‘우리 경제는 아직 회복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경기 저점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경영자가 43.1%로 가장

많았고, ‘더블딴(이중침체 현상)’을 우려한 경영자도 29.4%나 돼 지역 경제 바닥론에 대한 시장의 낙관적 견해를 경계했다.

반면,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회복 단계’라는 응답한 경우는 17.8%에 불과했다. 최근 경기 지표가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4.5%는 유동성 확대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경기 회복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CEO들은 경기 회복 시기를 내년 상반기(39.5%), 하반기(34%) 등 2010년을 73.5%로 가장 많이 꼽았다. 2011년(9.5%), 2012년 이후(5.4%) 등을 제시한 경우도 많

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CEO는 10.5%에 그쳤다.

이외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 개별 기업의 경영상황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년’이라고 답한 경영자도 43.4%로 가장 많았다.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응답한 경우도 21%나 됐다.

경영자들은 또 올해 하반기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불안’(23.4%)을 들었고 ‘세계 경제침체’(20.8%), ‘국내 소비 침체’(14.3%), ‘환율 불안’(12.1%) 등의 순이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신세계 2분기 영업이익 105억

전년동기비 7.1% 늘어

광주신세계는 15일 2분기 영업이익이 105억9천7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1%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같은 기간 매출액은 464억5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늘었고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18억1천900만원으로 9.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매출액(임직업태 매출 포함)은

975억2천만원으로 1년전에 비해 3.4%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백화점 총매출액이 742억원, 이마트 총매출액이 233억원을 기록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운영자금이 늘면서 이자 수익이 늘어났다. 올해 초부터 회사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노력을 했던 게 이익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저탄소 녹색성장 공감 하지만

지역 기업 70% “대책 없네요”

광주상의 100곳 조사

광주·전남 기업들은 저탄소 녹색 성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15일 내놓은 지역 제조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가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줄이기와 관련, 상당수 응답자들은 ‘탄소 줄이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43.8%),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41.1%)고 답하는 등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인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거나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세

워놓는 기업들은 30.1%에 불과했다. 69.9%의 기업들은 계획중인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했다.

상당수 기업들은 또 저탄소 녹색 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데 대해 ‘관련 지식과 정보 부족’(44.4%)을 꼽았고 다음으로 ‘업종 특성상 기후변화와 직접 관련 없음’(31.5%), ‘시설교체 등 과도한 비용 부담’(13.0%), ‘탄소 줄이기 기술과 노하우 미비’(5.6%) 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 기업들의 63%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과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해 정부 정책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욱기자 dok2000@

대부업 금리인하 유도

ABS 발행 허용 검토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리 49%를 적용하는 대부

업체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저리 자금조달이 가능한 ABS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부업체가 ABS를 발행하게 되면 기초자산을 금리 30% 미만 대출이 절반이 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BS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관련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넣고 그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연합뉴스

TV·냉장고 등 개별소비세 부과

정부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TV, 냉장고, 드럼 세탁기, 에어컨 등 4개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4

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세 기준과 관련, “이들 중에서도 대용량 제품 중 전기 절대소비량이 큰 품목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도 이 방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Item and Value. Includes 코스피지수 (1,420.86), 코스닥지수 (486.67), 금리 (3.99%), and 원·달러 환율 (1,278.5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won Real Estate,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unil Real Estate,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